

부시 방한과 아펙에 맞서 11월 18일 부산으로!

- ★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 부시반대
범국민대회

11월 18일 오후 1시 부산

주최: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

- ★ 아펙반대 부시반대 전야제

11월 17일 저녁 7시 부산

주최: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



※ 이 유인물은 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단체
‘다함께’가 제작했습니다.



9월 24일 워싱턴에 모인 30만 명의 반부시 시위대

부 시가 아펙정상회의(11.18-19)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옵니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전쟁광입니다. 부시는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총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또, 부시는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 아펙(APEC)은 부시가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이고, WTO의 구원투수입니다.

지난 9월 24일 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워싱턴에 모여 부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11월 18일 부산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에 함께 합시다. 부시는 지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전쟁광 부시와 APEC 맞선 부산 행동에 함께 참가합시다!

‘다함께’ 와 함께 11월 18일 시위에 참가합시다!

- 참가비: 5만원(대학생은 4만 원으로 할인)
※ 참가비에는 왕복버스비용, 여행자 보험비, 다섯끼의 식사비, 시위물품 제작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참가신청방법 : ‘다함께’ 홈페이지(www.alltogether.or.kr)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 및 이메일 참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 11월 18일 시위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함께’ 홈페이지의 부시방한반대 아펙반대 페이지(www.alltogether.or.kr/stopbus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2271-2395 nobushapec@hanmail.net